

현대건설, U대회 선수촌 시공사 참여

광주시에 제안서 제출... 재건축 사업 금물살

국내 1위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재건축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매출 10조 원시대를 연 현대건설이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U대회 선수촌 참여를 전격 결정하면서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재생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됐다.

1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U대회선수촌 재건축 참여를 놓고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왔던 현대건설이 이날 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선수촌 시공을 맡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광

주시에 '선수촌 재건축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광주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선 5기 중점현안으로 '구도심 재생'을 천명한 뒤 대표적 사업으로 부각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선수촌 조경사업은 앞으로 행정절차, 철거 및 공사 착공 등만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대림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국내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시공사 참여를

거부하면서 애초 2015년 광주U대회 개막에 맞출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번 현대건설의 참여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직접 현대건설을 접촉하는 등 선수촌 재건축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송귀근 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간부들도 현대건설 임원들을 만나 사업 참여를 설득해왔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에 감사한다"며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어 미분양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사업이 무난히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미분양이 남아 있는데다 수요가 소규모 평형대에 몰려 있어 이 같이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건축한 화정주공아파트는 29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9만4112㎡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에 30층 규모, 370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 중 39평 이상 대형 평수가 10%를 차지해 향후 협상과정에서 세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정주공아파트 주민들과 환영의사를 밝혔다. 정삼도(53)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한다"며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어 미분양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사업이 무난히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역 KTX 운행 중단말라” 민주당 광주 북갑지역위원회 당원과 시민들이 1일 오전 광주역에서 ‘2014년 이후에도 광주역에 KTX가 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졸실업자 10년만에 11만명 늘었다

작년 34만명...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지난해 급속한 경기 회복에도 대졸 이상 실업자가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대졸 이상 실업자가 작년이 가장 많아, 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직 눈높이가 현실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34만6000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2000년 대졸 이상 실업자가 23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만에 11만6000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2001년 23만3000명, 2002년 22만4000명, 2003년 25만3000명 등 2008년까지 20만명선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2009년 32만1000명을 기록하면서 3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고졸 실업자가 지난해 42만명으로 전년(43만7000

명)에 비해 1만7000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된다.

대졸 이상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일자리는 외환위기 전인 1995년 412만7000개에서 2008년 372만4000개로 40만3000개 줄었다. 반면 대학진학률은 1995년 51.4%에서 2008년 83.8%로 높아져 대학 졸업생은 33만명에서 56만명으로 23만명 늘어났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대졸 청년층은 대폭 늘었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연합뉴스

지방의원 선물·향응 못받는다

‘행동강령’ 내일부터 시행... 활동 여비 지원도 금지

오는 3일부터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1월 공포된 데 이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과 행동강령 운영 방안 등 2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우선 의원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

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전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시, 호남광역경제권 연계사업 설명회

7일 첨단 테크노파크

광주시는 1일 “2011년 호남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내 테크노파크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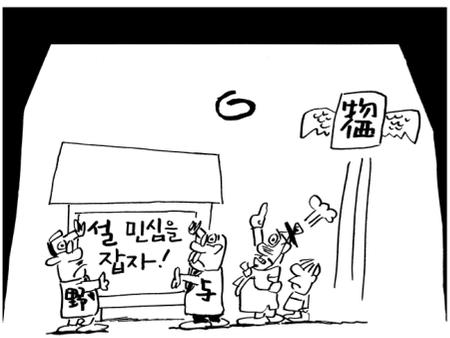
호남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권 내 3개 이상 시도, 또는 광역권 간 2개 이상 시도가 연계

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를 통해 전국적으로 1000억원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과제별 사업비는 3년 300억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며, 지방비 25%, 민자 25%를 충당해야 한다.

지원분야는 일반제조업을 포함해 산업 간 융합 및 녹색성장분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그만두고 물가나 잡으시오

설 연휴 직장인 “평균 4.2일 쉰다”

선물은 현금 최고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전국 직장인 3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설 연휴에 평균 4.2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의 48.5%가 주말을 포함해 2~6일까지 닷새를 쉰다고 답했고 법정 공휴일인 2~4일 사흘만 쉰다는 직장인은 29.0%였다.

생선 현상이 밀집한 울산지역이 3.

7일로 가장 짧았고 서울이 4.3일로 연휴 기간이 가장 길었다. 광주는 4.1일이었다.

응답자의 49.5%가 이번 설에 귀향한다고 답했으며 집에서 쉬겠다는 직장인도 비슷한 수준인 47.7%로 집계됐다.

귀향한다는 직장인 중 50.3%가 연휴 첫날인 2일에, 19.2%가 3일에 고향으로 출발한다고 답했다.

설 선물로는 현금(73.4%)을 준비했다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년 설과 선물 비용이 비슷하다는 직장인이 66.4%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녀교육비·장애수당 지급시 금융재산 조사”

앞으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당 지급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수당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등의 신청인인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지만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

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정비해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인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확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폐지하는 ‘경찰공무원인용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도 취득세 감면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연합뉴스

靑 경제수석 김대기 기획비서관 이진규씨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공석인 청와대 경제수석에 김대기(55·시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임명했다.

서울 출신인 김 신임 수석은 행사 22회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재정운용실장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연말 신설했던 기획비서관에 이진규(49) 청와대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50%~90%

http://www.t-mong.co.kr

광주의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몽키에서 하루에 한가지! 광주의 모든것들을 반값에 드립니다.

티켓 몽키 어린이 어플리케이션은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명,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 언어(최복수외) 2명
- 영어(신경찬외) 2명
- 수학(주석진외) 2명

12년 국·영·수 능력평가시험 완벽준비

IBT 방식 평가는 화상실판방식인

입구정영어가 좋다

원어민 선생님과 1:1 커딩 · 회화를 숙련한다

한국인 선생님과 1:1 독해 · 문법 강의를 한다

결론은 多讀, 多聽, 多習이다

선생님이 회화가되면 학생은 당연히 유창할수있다!

- 초, 중, 고 영어관련선생님 영어강의 도와드립니다
- 교수님, 예비교수님 영어강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 가이드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읽어민 1:1

입구정영어회화 · 리딩

ah-english.com | 070-7433-0594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명,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 언어(최복수외) 2명
- 영어(신경찬외) 2명
- 수학(주석진외)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어학원 ☎(062) 672-0483

카카오톡 채팅에서 상담하세요.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고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초 개강!!

수시등록가능 (주간/주말반 전액석 있음)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2개월 15만원

www.egosi.co.kr [1차 : 5월 29일 시험대비]

062)226-5050 으로 신청바람!!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충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박사, 윤종하(전)풍관원, 최대농농사협위원장, 손승운, 송상호, 전정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집 농업전문 ☎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